

▶ 임실의 전통창작 공연 '춤추는 상쇠-필봉연가', 내일 첫무대

필봉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신명나게'

필봉문화촌서 9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

임실군의 대표적인 전통창작 공연인 '춤추는 상쇠-필봉연가(筆峯宴歌)'가 드디어 무대에 오른다.

1일 군에 따르면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 공연인 '춤추는 상쇠-필봉연가'가 3일 임실필봉문화촌에서 첫 선을 보인다.

전통연극인 필봉연가는 오는 9월 9일 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0분간 총 25회에 걸쳐 필봉문화촌에서 펼쳐진다.

필봉연가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우리의 필봉농악을 긴 세월 동안 곳곳하게 이어오고 있는 필봉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이를 통해 지역민과 임실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의 소중함, 가치를 전하는 한편 전통 창작공연 예술의 신명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관람객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임실 필봉마을 교유의 역사적·문화적·환경적 특성을 모티브로 주제를 설정했다.

공연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호남좌도 농악의 분산인 필봉농악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농악을 치며 필봉마을을 지키고 사는 필봉상쇠 필봉과 마을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주된 스토리는 필봉농악의 유병세에 덩



달아 청년들은 유병세를 타지만, 서른이 넘도록 혼기를 놓쳐버린 청년 봉필이 낯선 여자와 난데없는 결혼을 선언하면서 봉필어매의 반대로 감등을 겪는 필봉마을의 이야기이다.

올해 임실필봉농악 야간상설공연이 내건 큰 기치는 소통과 화합, 그리고 전통예술의 세계화다.

이 공연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이어지며 전통성과 정체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이다. 올해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포함 2억 7200만원이 투입된다.

이날재 과장은 "필봉야간상설 공연은 해를 거듭할수록 관람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신명나는 놀이판이 되도록

보다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며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전하고, 필봉농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임실필봉농악보존회(063-643-1902)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아리스나인 패션·뷰티쇼' 내일 오거리광장서

환경문화조직원위원회는 아리스나인 패션·뷰티쇼, 3일 전주 오거리광장에서 선보여 환경문화조직원위원회(위원장 김승중)는 3일 오후 7시 전주 오거리광장 특설무대에서 '아리스나인 패션·뷰티쇼'를 갖는다.



아리스나인 패션쇼는 기부 받은 헌 옷을 리폼해 재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일종의 녹색생활 캠페인.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저탄소형 실천이 생활화 되도록 홍보하고자 함이다.

'아리스나인'은 수탈의 영어 명인 아리스(Otters)와 숫자 9(nine)의 조합. 이는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탈이 점주의 도심 하천에 적어도 아홉 마리 이상 서식할 수 있게끔 환경을 보호하고 가꾸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패션쇼에서 선보이는 의상들은 패션쇼 홍보대사인 이상봉 디자이너와 패션 전공 학생들이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

시민 모델과 함께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과 최재용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윤희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재용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 박선이 덕진구청장, 조호찬 전북석유유통협회 장, 추원호 신세대건축사 대표 등 명사 모델들이 패션쇼의 런어웨이를 장식한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특별출연해 행사를 축하한다.

이번 패션쇼의 수익금은 야생동물 보호, 불우이웃돕기, 암환자 가족 돕기, 장학금 지원 등에 쓰인다. /정해은 기자

▶▶ 공연 전시 ◀◀

도립국악원, 3일 무주서 '여름 여는 국악콘서트'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은 3일 오후7시 무주등나무운동장 야외무대특설무대에서 '2017 여름 여는 국악콘서트, 락'을 연다.

'여름 여는 국악콘서트, 락'은 지역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악원이 도내 주요 관광지를 찾아가는 특별 기획공연으로, '무주산골영화제' 기간 도를 방문한 관광객들과 도민들에게 전통예술의 멋과 흥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물놀이와 자유로운 선율을 뱉는 태평소를 즉흥적으로 연주를 시작으로 국악으로 들려주는 영화음악 시네마천국의 'Childhood And Manhood'·올드보이의 'The Last Waltz'·타이타닉의 'My Heart Will Go On', 국악 선율 위에 40여 개의 동·서양 타악기와 모듬북의 놀음이 흥을 돋우는 무대를 펼친다.

이어 감미로운 선율로 전통을 재해석한 국악가요 '소금장수, 배 띄워라, 신시렁'이 가 수려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감동을 전한다.

또한 국악관현악과 비보이·서커스협연 '멋으로 사는 세상'과 비보이 공연 'GO! FREESTYLE!'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열정적인 공연을, 사물놀이 선반 '관'은 민속음악 장단 특유의 역동성에 바탕을 둔 사물놀이의 흥겨운 가락에 춤사위를 펼쳐 보인다.

여기에 태평소와 사물의 선율, 역동적인 춤사위와 선이 고운 '삼노닐이'가 인간의 심장을 울리는 몸짓으로 여름밤의 향기를 더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수탈의 바다, 그날의 기억' 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서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은 2017년 바다의 날을 맞아 '수탈의 바다, 그날의 기억'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날 29일부터 문을 연 이번 기획전은 일제의 침략이 바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바다를 빼앗김으로써 끝내는 육지마저 잃게 되었다는 이제와는 색다른 시각의 주제로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회의 공간은 본 전시인 '수탈의 바다 그날의 기억'과 보조 전시인 '바다 위 신들의 전쟁', 체험공간인 '바다놀이터' 총 세 곳으로 구성했다.

본 전시 '수탈의 바다 그날의 기억'은 총 5부로 진행되어 서해안 최고 항구였던 군산이 겪은 수산업 침탈의 역사를 100여점의 자료와 영상물로 선보이게 된다.

이번 전시는 근대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군산시가 해양수산부 및 국립해양박물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군산해양수산청, 군산수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청 등 많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다.

특히 오는 7월 군산에서 진행되는 전국해양문화화자대회와 연계해서는 해양과 근대도시 군산의 면모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자 계획하고 있다. /군산=장희 기자

태권도박물관서 '하모니 오브 아츠' 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은 '2017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맞아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하모니 오브 아츠' 전시회를 열고 있다.

재단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태권도원의 국립태권도 박물관내 미술관(1층)에서 서훈희 작가(태권도 6단)의 작품 25점을 선보이는 전시회 '하모니 오브 아츠'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1988년 서울올림픽 태권도 종목 국제심판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호주에서 원주민 태권도사범과 호주한인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서훈희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이다.

전시회의 작품들은 태권도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아크릴화'를 사용해 반추상적인 화법으로 제작해 작가만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통민속악기 명인들을 만나다

국립민속국악원, 오늘부터 '민속악축제' '삼현육각' 최경만·'거문고산조' 이재화 출연



최경만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은 '제3회 대한민국 민속악축제'를 오는 2~23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에 국악원 예음헌과 예원당에서 펼친다.

민속악 축제는 정통민속공연예술의 계승·보존·발전을 위한 기틀과 가치 창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요무형문화재와 지방문화재를 비롯해 악·가·무·희 등 각 장르의 명인·명무·명창·연희단체 등의 무대를 선보인다.

'악·그 깊이에 노닐다', '가·그 깊이에 스미다', '무·그 깊이에 취하다', '희·그 깊이에 빠지다'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공연과 대담 그리고 예술가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현 국립민속국악원 지기학 예술감독이 공연의 진행을 맡는다.

먼저 2일 열리는 '악·그 깊이에 노닐다' 공연에는 이재화(중요무형문화재 제

16호 거문고산조 예능보유자)명인과 최경만(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 예능보유자)명인이 출연한다.

이들 명인은 북한의 거문고 민요로 1990년대 김용실이 연주한 '방아타령'과 1964년에 편곡한 '박연곡포' 변주곡, 자유롭고 편안함이 특징인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 진취적이고 대중적인 음향을 창출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재화류 거문고산조'를 들려준다.

이어 파리명인 최경만의 무대에서 서울 및 경기지방의 승무·검무·굿 등의 반주음악으로 사용돼 온 관악기 대표곡 '대풍류', 경기민요 아리랑의 애절함이 묻어나는 '긴아리랑', 경쾌하고 다양한 장단의 변화 속에서 경기무악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호적풍류'를 선보인다.

공연은 전석 무료. /정해은 기자



이재화

'KBS 국악 한마당', 내일 고창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오는 6월 3일 오후 4시, 인기드라마 '군주' 촬영지로 주목 받고 있는 고창읍성 앞 야외특설무대에서 'KBS국악한마당' 고창 편을 준비해 아름다운 우리의 음악을 전한다.

'KBS 국악한마당'은 지난 1990년에 시작한 '국악춘추'를 모태로 시작된 국내 최장수 국악 전문 프로그램으로 국내외의 내로라하는 명인, 명창, 명무를 소개하고 국악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편에서는 전통타악그룹 '꽃'의 웅장하고 역동적인 타악 '굿-대복합주'와 인기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을 빛낸 스타명창 박애리씨의 판소리 수궁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 정수인 민요팀의 민요 '신밧노래, 풍년가', 창작음악그룹 원의 창작국악 '성주들이', 전북대학교 무용과가 교정무용의 꽃 '꽃바구니 춤'을 선보인다.

또 재치 있는 입담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리꾼 남상일씨의 판소리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로 '제27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대통령상)을 수상한 왕기철 명창과 동생 왕기석 형제명창이 흥보가 중 '화초장 타령'을 입체적으로 선사한다.

한편 이번 방송은 오는 7월 1일 오후 1시 15분 KBS1 TV를 통해 전국으로 전파를 탈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식·축제 게스트 공개

사회 발은 배우 박철민·김혜나
페스티벌 프렌드 류현경 등 참석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는 개막식과 영화제 기간 축제를 빛내줄 참석 게스트를 공개했다.

2일 오후 6시30분 무주등나무운동장에서 진행될 개막식은 주요 게스트들이 참여하는 그린카페토로 막을 올린다.

무주군다문화센터 반다수화합창단의 특별공연으로 본격적인 식을 시작하는 행사는 독보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수 한영애의 축하공연에 이어 김태용·윤세영 감독이 공동 연출한 개막작 '레게 이나 필름(Reggae Inna Film)', 흥부'를 상영한다.

개막식에는 사회를 맡은 배우 박철민과 김혜나를 비롯해 페스티벌 프렌드 배우 류현경, '관' 색션 상영작 (비밀은 없다)의 이경미 감독, <튼튼이의 모험>의 배우 김충길·심민재, 한국경제신문 '창' 색션 상영작 <공동정범>의 김일란·이혁상 감독, <초행>의 김대환 감독, <분장>의 남연우 감독, <아기와 나>의 배우 이이경, <재꽃>의 박석영 감독·배우 정하담 등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을 맡은 (미담 뽕떡)의 임필성 감독, 씨네21 주성철 편집장, <변호인> 및 <밀정> 등을 제작한 워너브라더스코리아 로컬프로덕션 최재원 대표, <풍파리>의 감독 겸 배우 양익준, 배우 김기찬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또한 영화계 인사로는 한국영상자료원 류재립 원장, 한국영화아카데미 유영식 원장, 나우필름 이준동 대표, JYP 픽처스 표종록 대표,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조재현 집행위원장과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차민철

집행위원장, 서울국제사랑영화제 배혜화 집행위원장, 서울프라이드영화제 김조광수 집행위원장, 전북독립영화제 유순희 집행위원장 등이 영화제를 찾는다.

한편 개막식 이후 영화제 기간에는 <우리들>의 윤가는 감독과 배우 최수인·설혜인, <스플릿>의 최국의 감독을 비롯해 한국장편경쟁부문 '창' 색션에 <초행>의 배우 김새벽, <폭력의 씨앗>의 배우 김소이 등 총 17편의 한국영화에 참여한 40여 명의 감독 및 배우가 무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무주=전문선 기자